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7 Summer Vol.49

근심걱정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도록
창문을 활짝 열고, 해안도로를 달려볼까요?



In Schaeffler

page 16 다시 찾는 수학여행
서울사무소 인사 Unit



For Life

page 30 사랑의 세레나데
전주공장 공정기술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임주혁 대리



To Communicate

page 48 따뜻한 시선
EVERGREEN 5기 행복주머니 만들기 봉사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휴가를 꿈꾸고 있나요?
‘돌아와서 무얼 하지’라는 근심걱정은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배낭을 메고
무작정 자동차에 올라 타보는 건 어떨까요?
도시를 벗어나 만나는 바닷가 풍경은
복잡한 마음속 푸른 여유를 선사합니다.

함께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기술,
세플러가 함께합니다.

세플러+원

2017 SUMMER Vol.49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일러스트: 이승정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장마가
여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슴을 부리는 여름날 해안도로를
질주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다보면
근심걱정은 어느새 바람에 실려
날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발행일	2017년 7월 17일(통권 제49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유근성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434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인쇄	솔텍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접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ver Story

02 자동차 속 세플러 기술

In Schaeffler

04 테마 노트
고객만족을 위한 지름길, 작은 변화와 차별화

08 리더에게 묻다
서울사무소 구매 안대환 이사

10 미래를 위한 움직임
상상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 어디까지 왔을까?

12 무모한 도전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16 다시 찾는 수확여행
서울사무소 인사 Unit

For Life

22 행복 노트
임직원 자녀 동시 공모 우수상 두 작품과 이외 참가작

26 아빠 어디가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배영식 사원

30 사랑의 세레나데
전주공장 공정기술 테이퍼 베어링 세그먼트 임주혁 대리

34 세플러 미식회
테크놀로지 전용기 개발 이견영 사원, 이동렬 사원

To Communicate

40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남미 사람들의 여름 휴양지,
콜롬비아 산 안드레스 섬(San Andres)

44 트렌드 2017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46 새로운 시선
세플러를 그려갈 8명의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48 따뜻한 시선
EVERGREEN 5기 행복주머니 만들기 봉사

50 B컷 퍼레이드

52 Schaeffler FOCUS

55 Schaeffler NEWS

58 Schaeffler Hotline

고객만족을 위한 지름길, 작은 변화와 차별화

“어떻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불편해 하는 것,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것에 맞추어서

변화하고 차별화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 작은 차별화가 엄청난 성과로 연결될

성공 사례를 찾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정성’과 ‘실천’만으로

우리들은 정말 대단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로지텍(Logitech)’의 무선 프리젠퍼

**고객의 편의를 위한 간략한 기능,
로지텍(Logitech)의 무선 프리젠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수월하고, 돋보이도록 도와주는 무선 프리젠퍼. 요즘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제품이 되고 있다. 시중에 있는 무선 프리젠퍼를 살펴보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담기 위해 복잡한 기능을 좁은 공간에 잔뜩 집어넣은 상품이 대부분이다. 일생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법한 복잡한 기능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핵심기능을 사용할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고객 만족경영이란 것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라고 증명해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다. 바로 컴퓨터 주변기기업체인 ‘로지텍(Logitech)’의 무선 프리젠퍼다.

발표자나 강연자 입장에서 포인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딱 세 가지(전진, 후진, 레이저)이다. 혁신과 품질을 우선으로 1981년에 창업된 스위스 기업 ‘로지텍(Logitech)’의 무선 프리젠퍼는 다양한 기능은 생각하고 딱 세 가지 기능으로만 제품의 품질을 높였다. 로지텍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이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그 다음으로 설계자와 엔지니어들이 고객의 사용경험을 더욱 개선하여 그들에게 품질, 편의, 오락성, 생산성, 편리성,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일한다”며 자신의 제품 개발 철학을 밝혔다. 전자제품 사용을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고객을 위해 간략하게 편리한 기능 위주로 심플하게 제작하는 로지텍. 눈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기능은 버리고, 기본에 충실해 성공한 차별화 대표사례다.

**디자인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GE의 어린이 친화형 MRI**

대부분의 의료 기기들은 운전자 위주로 만들어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참으로 더딘 분야다. 이런 점에서 GE의 고객 친화적 MRI(자기공명 영상)는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선구자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20년 동안 GE에서 MRI 개발에 전념해 온 ‘더그 디에츠’는 높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진 엔지니어이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로 하여금 고된 연구개발 작업에서도 지치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사용자인 어린 환자들은 자신이 경험 가운데 최악으로 꼽은 것 가운데 하나가 MRI진료라고 답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가 수 십년 동안 놓친 것은 고객들이 기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개입하지 않았던 점이다. 오로지 기능의 향상만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행동해 왔음을 증명하는 대답이었다.



‘GE’의 어린이 친화형 MRI

어린 환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답답하고 시끄러운 공간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느꼈을 법한 불안감과 고독감에 주목한 그는 스탠퍼드의 혁신 스쿨에서 배운 '디자인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어린이와 교사 그리고 간호사들과 협업하여 내놓은 것은 MRI의 외관을 마치 우주탐사선이나 보물선으로 꾸미고 검사를 받는 동안 영상과 음향을 제공해 주는 제품을 내놓았다. 아이들은 진료를 받는 동안 보물선을 찾아가거나 해저 탐험에 참가하고 있다는 상상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환자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에 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어린이용 의료기기에 그치지 않고 얼마든지 어른용으로 그리고 다른 의료기기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니즈를 반영하여 차별화와 변화를 시도한 모닝글로리

기술이 평준화되는 시대에는 모든 제품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경쟁사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그만큼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회사들은 경쟁사 제품의 불편함이나 아쉬움을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한 다음 소비자 중심으로 제품 설계를 바꾸거나 개선한 타제품을 출시해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소비재인 스프링노트를 꼽을 수 있다. 학창 시절의 추억 속에는 항상 스프링 노트가 있다. 이 노트를 사용하는 일이 편리하지만 무언가를 적다 보면 자꾸 스프링이 손에 걸린다. 아무도 이런 불편함에 주목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흘렀다. 모닝글로리는 스프링노트의 가운데 부분에서 과감하게 스프링을 날려

버렸다. 위와 아래에만 스프링을 붙인 '쓰기 편한 PP노트 시리즈'를 시장에 내놓았는데 반응이 좋다. 같은 회사의 히트 상품은 '친절한 단어장'이다. 표지를 돌로 나눈 다음 한쪽에는 영어 단어를 다른 쪽에는 뜻을 적어두었다가 한쪽을 교대로 가리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한 이 상품은 무려 100만 권이나 팔리는 히트상품이 되었다. 소비자의 작은 니즈를 반영하여 작은 차별화와 변화를 시도한 결과였다.



‘모닝글로리’의 쓰기 편한 PP 노트



경쟁사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요즘.

불편함이나 아쉬움을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한 다음, 소비자 중심으로 제품 설계를

바꾸거나 개선해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세 가지 성공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객만족의 시작은 누구든지 고객의 행동과 불편함과 욕구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단한 움직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작은 변화와 작은 차별화가 고객만족을 위한 지름길임을 인식할 때 가능한 일이다.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해 보자. 고객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마음 그리고 '고객들이 무엇을 원할까'라는 작은 호기심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선물해 줄 것이다. 이들을 통해 기업은 기대하는 성과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원들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 일 것이다.

탁월한 의사소통으로 신뢰받는 리더

서울사무소 구매
안대환 이사



Mini Profile

생년월일
1971년 11월 19일

혈액형
AB형

가족관계
아내와 1남1녀

취미
요리

요즘 관심사
재테크

주량
소주 두 병 정도

좌우명
열심히, 즐겁게 살자

1998년 서툰 신입사원 시절을 지나, 2017년 세플러코리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까지, 회사의 변천사 속에 기쁨과 풍파를 함께 겪으며 구매부서의 중심이 된 남자, 안대환 이사를 만나 소소한 직장생활의 에피소드와 인생철학을 들어보았다.

파란만장했던 신입시절

Q. 처음 입사했던 때를 떠올려본다면?

A. 제 신입사원 시절을 떠올려보면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1997년 10월, 우리의 전신이었던 한화기계로 입사가 확정되자마자 IMF 경제위기가 발생해 5개월 정도 입사가 지연되어 다음해 2월에 첫 출근을 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입사했지만, 당시 혼란스런 분위기 탓에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밝은 성격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해갔습니다.(웃음)

Q. 아찔한 실수를 했던 적이 있나요?

A. 견적의뢰를 해야 하는데 제품발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ERP시스템이 잘 갖춰있지 않아서 모든 문서를 수기로 작성했었는데, 비슷하게 생긴 견적의뢰서와 구매신청서 양식을 구별 못한 거죠. 결국 불필요한 제품이 다량으로 납품돼 굉장히 난감했고, 혼도 많이 났었죠. 그 후로 절차상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버릇이 생겼고 우리 구성원에게도 업무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Q. 힘드냐, 나도 힘들었다!

A. 초반에 낯선 회사 용어들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실제 재무에서 필요한 용어와 공업용 언어들 그리고 생산에서 쓰이는 일본식 표현들까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다보니 저도 모르

는 사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때의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우가 있다면, '나도 경험해보니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더라'라고 격려해주고 싶네요.

세플러코리아의 압박형 미드필더

Q. 19년 동안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나요?

A. 한 직장엔 20년 정도 다녔더니 그런 위기가 한 두 번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대리과 과장 때 즈음이었는데, 퇴사 하고 싶거나 이직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선후배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휴식기간도 보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재충전했던 것 같아요. 회사의 주체가 오너가 아닌 '나'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됐습니다.

Q. 나는 세플러의 OO다.

A. 성격이 급한 편이라 빠르게 결정하는 걸 좋아하고, 성취욕도 많은 편이라 비유를 하자면 '압박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구성원들에게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결정을 확실하게 해주는 일이 곧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점을 구성원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Q. 내게 세플러코리아란?

A.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세플러코리아

의 변천사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플러의 일원이란 것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동료들도 더 애뜻하게 느껴지고요. 어떻게 보면 하루의 주어진 시간을 가족보다 동료들과 훨씬 많이 보내는 만큼 동료들에게 예의는 갖추되 권위적인 상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죠. 지금도 세플러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안정감 있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책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리더

Q. 2017년 목표가 궁금합니다.

A. 올해 5월부터 도입된 ERP시스템을 순조롭게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전체 시스템에서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안정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 초반이라 손도 많이 가고, 아직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플러 가족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목표는 매년 세우는 위시리스트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슬림해졌으면 좋겠습니다.(웃음)

Q.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고 싶나요?

A. 제 개인적 성공뿐만 아니라 조직 내 모든 직원들을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구매부서는 세플러에서 가장 젊은 조직이라 할 수 있죠. 젊은 만큼 직원들의 밝은 에너지를 더욱더 끌어내 세플러의 큰 보탬이 되는 조직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지나간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최대한 즐기며 조직 내 원칙을 지키며 성장하는 진정한 세플러인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상상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 성큼, 어디까지 왔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른바 플라잉카(flying car) 시장을 두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당장 오는 2020년부터 세계 곳곳의 상공과 지상에 플라잉카 상용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글로벌 스타트업뿐 아니라 항공, 완성차, 카셰어링 업계까지 플라잉카 개발을 위한 투자와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 ‘스카이드라이브’ 출시하는 일본

먼저 이웃 나라 일본의 벤처기업 카티베이터(carivator)는 토요타의 지원을 받아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라는 플라잉카를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카티베이터는 자동차와 항공산업분야 출신 30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집단으로, 2012년부터 스카이드라이브의 개발에 착수했다. 도쿠시마 대학과 온라인 비디오 개발 업체의 협업을 통해 당장 내년 에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다. 토요타는 이를 위해 420만 엔(4억1,000만 원) 투자를 결정하는 등 플라잉카의 잠재 가능성을 높이 샀다. 스카이드라이브는 길이 2,300mm, 너비 1,300mm, 높이 1,100mm로 상공에서는 시속 100km, 지상에서는 시속 150km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상에서 10m 미만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장점이다. 드론과 같이 4개의 날개를 사용, 속도를 변경함으로써 이동 방향을 조작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속속들이 등장하는 ‘플라잉카’

일본 외에 플라잉카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에어로모빌 2인승 플라잉카 ‘에어로모빌 3.0’을 지난 달에 선보이며 사전 주문을 받고 있다. 3분 이내에 자동차에서 비행모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는 최고 160km/h, 하늘에선 36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판매 가격은 약 150만 유로(한화 약 18억7,500만 원) 가량으로, 500대 한정이다. MIT 출신들이 지난 2006년 설립한 미국의 테라푸기아도 2인승 플라잉카 ‘트랜지션’을 이미 2009년에 출시, 약 30만 달러(한화 3억3,500만 원)에 판매중에 있다. 향후 가격이 저렴하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4인승 플라잉 카 ‘TF-X’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과 달리 헬리콥터와 자동차를 결합한 플라잉카도 있다. 네덜란드 팔-V는 플라잉카 ‘리버티’의 2020년 양산을 앞두고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최고 시속은 하늘과 지상에서 최소 180km이며, 주행거리는 하늘 기준 최장 500km, 지상은 1,200km에 달한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3억6,000만 원에서 최고 6억 원 수준이다. 이 외에 지난 3월 열린 제네바모터쇼에도 자율주행 비행이 가능한 모듈형 드론 컨셉트 ‘팝-업’이 공개된 바 있다. 프랑스 항공사 에어버스가 자율주행 1인용 플라잉카를 개발한 것. 또한, 중국의 이항도 1인용 드론택시 이항184를 이번 달 내에 두바이

에서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세계 최대 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도 활발하다. 2020년 날아다니는 비행 택시를 두바이와 델러스에서 선보이기 위해서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 자동차(VTOL)로 승객을 나르는 이른바 ‘온 디맨드 항공 호출 서비스’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인 것. 해당 서비스는 우버 택시를 부르듯 빌딩 옥상의 헬기장이나 지상의 이착륙 장소에서 비행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걸음마 수준인 한국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

이처럼 글로벌 시장이 플라잉카에 속속 뛰어드는 사이 한국은 플라잉카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단계다. 무인기 등 미래 항공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당장은 플라잉카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현재 플라잉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계획된 프로젝트도 고려 사항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잉카는 상용화에 앞서 법을 제정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세계 각국 정부가 수소차의 연료공급과 부속품을 표준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잉카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함께 제정, 지상과 항공에서 통용할 새로운 교통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비싼 가격과 안전 문제 등도 선결해야 할 문제 등으로 꼽히고 있다.



네덜란드 팔-V의 ‘리버티’



슬로바키아 에어로모빌 2인승 플라잉카 ‘에어로모빌 3.0’

내가 제일 잘 돌려! 호라후프 대결로 유연성을 뽐내다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는 더위도 잊은 채 업무를 처리하느라 분주하다.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일하러니 의욕이 떨어져 기분을 전환할 무언가가 절실했던 사우들. 함께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시원한 화채도 나눠 먹으며 더위를 식힌 현장을 따라가 보자.

안산공장 최고 유연성 왕은 나야 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6월,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는 올해도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기력 충전을 위해 다함께 인근에 있는 능길 운동장을 찾았다. 안산공장의 주축을 이루는 엔진부품 세그먼트는 평소 팀워크가 좋은 부서로도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대결을 임하는 부서원들의 태도가 소문에 걸맞게 적극적이었다. “바쁜 업무 와중에도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화식을 하며 서로 간의 감정을 터놓는 자리를 갖는다”는 부서원들은 “오늘만큼은 술자리가 아닌 푸른 잔디에서 함께 운동할 수 있어 좋다”며 대결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대결은 부서원들이 동시에 호라후프를 돌려서 한 번도 떨어트리지 않고 가장 오래 돌린 두 사람이 결승을 겨루어 우승자 한 명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호라후프를 손에 쥔 사우들은 “유연하지 못해서 자신이 없다”며 난감해했지만, 이내 오재중 팀리더의 힘찬 구령에 맞춰 스트레칭하며 긴장을 풀었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호라후프를 돌리기 시작한 사우들은 서로의 우스꽝스러운 동작에 웃음이 터졌다. 몇몇 사우들은 몇 번 돌리는 것 같더니 이내 호라후프가 주르륵 흘러내려 또 다시 부서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동료들이 웃거나 말거나 대결에 진지하게 임한 김동석, 최승호 사원의 호라후프는 허리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결국 두 사람이 결승 대결을 펼쳤다. 호라후프를 돌리며 걸어가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방식으로 결승전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결국 간발의 차로 안산공장의 유연성 왕은 김동석 사우가 차지했다. 부서원들은 “김동석 사원이 보기와는 다르게 유연하다”며 손뼉을 치며 축하했다.



안산공장 호라후프 왕을 찾아라!

#1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시작한 단체전



#2

손뼉을 치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부서원들



#3

결승전에 진출한 두 사람,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4

내가 먼저 갈거야! 아무도 날 막지마~



#5

우리부서의 최고 유연한 사람은 나야 나



더운 날씨에도 땀을 닦아가며 화채를 완성한 광영진 사원

진심 한 스푼, 정성 두 스푼 담은 화채

무더운 여름하면 떠오르는 과일을 물어보면 백이면 백 모두 '수박'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한바탕 땀 흘린 대결을 마친 후,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새내기 광영진 사원이 부서원과 풍족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원한 수박화채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수박은 갈증을 해소하고 피부 보습에도 좋아 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빠질 수 없는 과일이다.

잘 익은 수박 한 통을 반으로 쪼개 가르더니 빨간 속살을 한입에 먹기 편하도록 깍둑썰기 하던 광영진 사원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에 선배들과 가까워질 계기가 없었다"며 "이

기회에 선배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수박화채를 대접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근사한 요리는 아니지만, 정성을 가득 넣으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웃음)" 서툰 솜씨였지만 아무지게 앞치마를 동여매고 화채를 만드는 모습에서 자신을 친동생처럼 챙겨주는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진심이 충분히 느껴졌다. 어느덧 영진 씨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런 영진 씨를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부서원들은 "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며 오히려 영진 씨를 걱정했다. 네모난 수박이 담긴 대접에 사이다, 우유 등을 넣고 휘리릭 저은 광영진 사원은 완성한 화채를 먹기 좋게 컵에 따라 담았다.

Recipe

수박화채 레시피

재료

수박 1통
우유
연유
사이다
얼음



01 깨끗이 씻은 수박을 네모난 모양으로 깍둑썰기 해 준비한다.



02 둥근 볼에 깍둑썰기 한 수박을 담는다.



03 우유와 연유를 넣어 저어준다.



04 청량감을 더하는 사이다를 부어 저어준다.



05 완성된 화채에 얼음을 가득 넣는다.



06 국자로 먹기 좋게 컵에 옮겨 담아 완성한다.

도란도란 앉아 시원한 화채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부서원들. 잠시나마 스트레스는 날리고, 무더위를 식히는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냈다.

옹기종기 앉아 팀워크를 확인하다

완성한 화채를 보고 달려온 부서원들은 푸른 잔디 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았다. "어릴 적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화채가 생각난다"며 옛 기억을 꺼내놓던 부서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화채를 한입 가득 먹었다. "등줄기에 흐르던 땀이 다 마르는 기분이에요." 부서원들은 자신들을 위해 정성을 다한 광영진 사원에서 고마움을 전했다. "앞으로 우리 광영진 사원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야겠네요(웃음)" 광영진 사원을 칭찬하며 이름 앞에 '우리'라는 말을 꼭 붙이던 오재종 팀리더. 그런 칭찬에 기분이 좋았는지 광영진 사원은 "제가 직접 만든 화채를 드셨으니 울 여름은 더워 걱정 없이 잘 나실 거다"라며 애교 섞인 말로 너스레를 떨었다. "부서원들 모두 바쁜 업무 탓에 힘들 법도 한데, 티 한 번 안 내고 묵묵히 일해 줘서 고맙다"는 오재종 팀리더는 "다음에는 자신이 부서원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화채 한 그릇으로 무더위를 잊은 엔진부품 세그먼트. 올해는 '안전사고 0건, 고객 품질불만 0건'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연말에는 안산공장의 우수팀으로 선정되고 싶다고 한다.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 더욱 친밀해진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엔진부품 세그먼트가 더욱 모범이 되는 부서로 거듭나길 바란다.



+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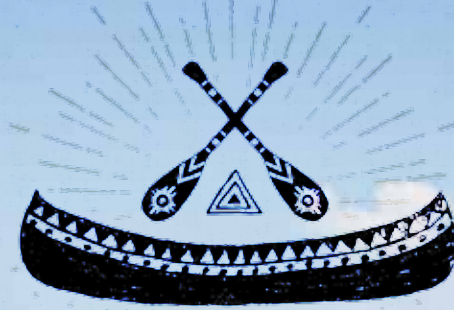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오재종 팀리더



평소와 다른 팀원들의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오늘처럼 부서원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지금도 모든 부서원이 잘해주고 있지만, 늘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한바탕 물놀이를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다



서울사무소 인사 Unit



한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갈증이 나던 6월, 세플러코리아 인사 Unit 부서원들은 오랜만에 사무실을 떠나 물 맑은 양평 흑천강으로 여름방학을 떠났다. 강물 위를 뚱뚱 떠다니는 카누도 타고, 시원하게 물장구도 치며 한바탕 물놀이를 즐겼던 순간으로 함께 가보자.

일상을 잠시 놓아두고 물 위에서 자유를 만끽하다

오랜만에 함께 떠난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양평 흑천강에 도착한 인사 Unit 부서원들. 차에서 내리자마자 움츠렸던 팔과 다리를 쭉 뻗으며 '드디어 도착했다'는 흥분함에 숨을 크게 들이켰다. 햇살이 뜨겁다 못해 따가운 날씨였지만, 부서원들은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이게 얼마 만에 다 같이 나온 건지... 함께 나온 것만으로도 좋네요." 세플러코리아에서 인력과 관계된 모든 일을 담당하는 인사 Unit은 채용 업무 외 내부평가와 급여, 직원 복지까지 세플러코리아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하는 부서다. 그만큼 세심하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던 부서원들은
힘차게 노를 저으며
청명한 하늘과 맑은 물,
그리고 우거진 숲이 빚어낸 절경을
찬찬히 눈에 담으며
자연을 만끽했다.”

”



게 챙겨야 할 업무가 많은 탓에 최근 몇 년간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를 갖지 못했다. 이러한 기회를 기다렸던 부서원들은 오랜만에 회사를 잠시 벗어나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양평을 찾았다. 한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전국의 호수와 계곡은 심각한 갈증에 시달렸지만, 흑천강은 인사 Unit 부서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위 사이로 힘차게 물이 흐르고 있었다.

카누를 타기 위해 구명조끼를 갖춰 입고 노를 든 부서원들은 안내에 따라 준비운동을 마친 후 조심스레 카누에 몸을 실었다.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래프팅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던 부서원들은 힘차게 노를 저으며 청명한 하늘과 맑은 물, 그리고 우거진 숲이 빚어낸 절경을 찬찬히 눈에 담으며 자연을 만끽했다. 풍류엔 풍악이 빠질 수 없듯이 노를 젓기 시작한 지 10여 분 지났을까. 부서원들은 강을 따라 흐르는 시원한 바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기분이 좋았는지 장난기가 발동한 장철수 과장은 사우들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시작했다. 사우들은 "웃이 젖는다"며 투덜거렸지만 이내 서로의 카누를 흔들었고, 박영곤 선임매니저는 노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등 유치한 장난을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갔다.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식히는 시원한 물놀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카누를 탄 부서원은 비록 물장난으로 온몸이 다 젖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모습으로 카누에서 내렸다. “다들 카누를 처음 타는 거라 걱정이 많았는데,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타서 재밌었다”는 부서원은 아쉬운 마음을 거두고 숙소로 가는 차에 올라탔다. 즐거운 수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니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고즈넉한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 앞에 있는 수영장부터 눈에 들어온 최진경 사원과 우성웅 사원은 물만 봐도 자석에 이끌리듯 달려가는 아이처럼 수영장을 향해 달려갔다. “이미 옷이 젖었으니,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해볼까요?” 최진경 사원의 제안에 사우들도 망설임 없이 물에 발을 담갔고, 준비한 물총과 비치볼을 꺼내 본격적인 물놀이를 즐길 채비를 갖췄다. 순식간에 수영장은 물이 사방으로 뿌러지며 물 전쟁터로 변했고, 사우들은 직책을 내려놓고 시원한 물놀이를 한바탕 즐겼다. 한편, 물놀이를 멀찌감치 지켜보던 박영곤 선임매니저와 권미영 사원, 김보현 사원은 평소 회사에서 나누지 못한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순식간에 수영장은 물이 사방으로 뿌러지며 물 전쟁터로 변했고, 부서원들은 직책을 내려놓고 시원한 물놀이를 한바탕 즐겼다.

내부 직원 및 외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한 인사 Unit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한다.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늘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부서지만 정작 가까운 부서원과는 교류할 계기가 적었던 인사 Unit 그래서인지 “오늘 함께 보낸 순간순간이 더욱 소중했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뜨거운 태양처럼 열정적인 기운을 듬뿍 나누다

물놀이를 마친 사우들은 잔디밭에 놓인 동그란 벤치에 웅기종기 앉아 서로의 어깨를 두들기며 하루의 피로를 풀기 시작했다. 아프니까 살살 해달라는 배영서 과장의 엄살에 정은선 사원은 더욱 세게 어깨를 두드려 사우들의 웃음을 유발했고, 이광렬 부장은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놀았더니 온몸이 빠근했는데, 피로가 말끔

히 사라졌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다. 비록 몸을 옥죄는 무더위의 연속이었지만, 시원한 물놀이를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린 사우들의 입가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양평에서 잊지 못할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새긴 인사 Unit 부서원들. 오늘의 기억으로 앞으로도 회사 내에서 남다른 팀워크로 소통이 활발한 부서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태양처럼 열정적인 기운을

듬뿍 나눈 부서원들은 각자의 역량을 더욱 발휘해 세플러코리아에 기여할 수 있는 부서가 되라며 손을 맞잡았다. 인사 Unit은 현재,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각 사업부별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형태로 조직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사업부별 비즈니스 파트너 형태로 조직이 변경된 후 지금보다 회사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부서가 될 모습이 벌써 기대된다.



다시 찾는 수학여행 그땐 그랬지 —

+ mini interview

장철수 과장
HR 평가 및 보상

〈다시 찾는 수학여행〉이라고 하니 정말 예전 학창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모두 잘 있는지 궁금하고, 그 시절이 너무 그림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4살 난 아들을 키우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오늘처럼 혼자 떠난 여행은 오랜만이라 흥분한 기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서원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부서원들이 업무도 오늘처럼 밝고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For Life _____

“오래 살기를 바라기 보다 잘 살기를 바라라.”
Wish not so much to live long as to live well.

–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내 인생 버킷리스트

– 살면서 이뤄야 할 자신과의 약속

죽기 전에 꼭 배우고 싶은 것과 그 이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과 그 이유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과 그 이유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장소와 그 이유

죽기 전에 꼭 이뤄야할 목표와 그 이유

- 인생 버킷리스트 작성 Tip
- 1.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작성합니다.
 - 2. 망설이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편하게 작성하세요.
 - 3. 다른 사람의 버킷리스트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거창하든 소박하든, 구체적이든 허무하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동심의 눈으로 담은 웃음 넘치는 우리 가족 이야기

〈임직원 자녀 동시 공모전〉
우수상 두 작품과
이외 참가작

세플렉코리아는 지난 4월 임직원 자녀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기회를 주고
임직원 가족의 화목을 독려하기 위해 '가족'을
주제로 한 '임직원 자녀 동시'를 공모했습니다.
총 43명의 임직원 자녀가 참여했고,
그중 가족애 · 창의성 · 완성도에
적합한 6개 작품(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2작품,
장려상 3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우수상 두 작품 외에 아쉽게
수상을 놓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창원공장
공정기술 창원 PMO
윤태인 매니저 자녀 '윤양희'



우수상

서울사무소 중부지사 해외영업
이선중 매니저 자녀 '이현준'



장려상

안산공장
엔진컴퍼넌트 BU 엔지니어링
김성환 책임연구원 자녀 '김효환'

서울사무소
Business Development
김문경 부장 자녀 '김서율'

창원공장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천명진 부장 자녀 '천민서'

최우수상(1명) 안드로이드 패드(20만 원 상당),
우수상(2명)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장려상(3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새싹상(37명) 백화점 상품권
2만 원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수상하신 임직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임직원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늘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중부지사 해외영업
이선중 매니저 자녀
'이현준'



창원공장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MU
임종철 자녀
'임수아'



우리 엄마는 변검술사!

이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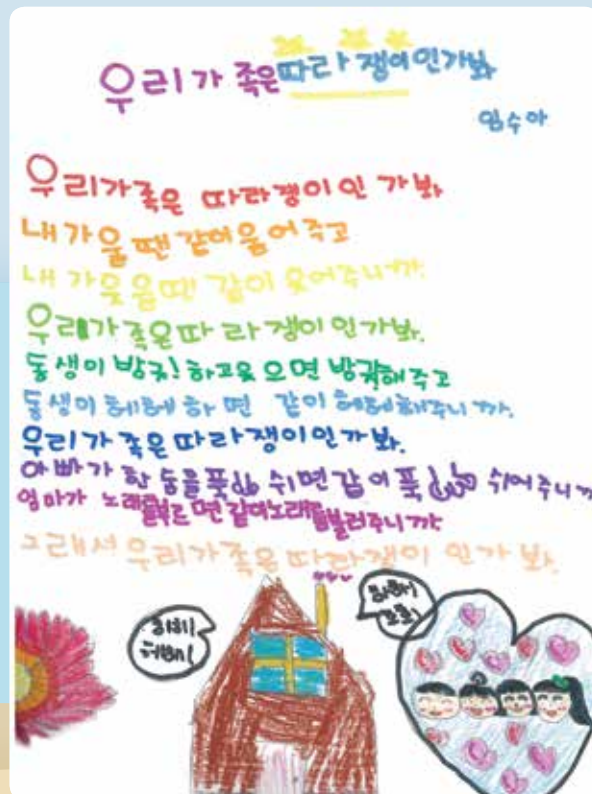
우리 엄마는
사색때마다 변하는
변검술사다.

아침 가성시간에는
시끄러운
자명종 시계!

우리를 혼낼때는
포효하는
무서운 호랑이!

굿나잇 키스를 할 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천사!

엄마의 변신은 무죄!
그래도 나는 늘 ~
우리엄마가 신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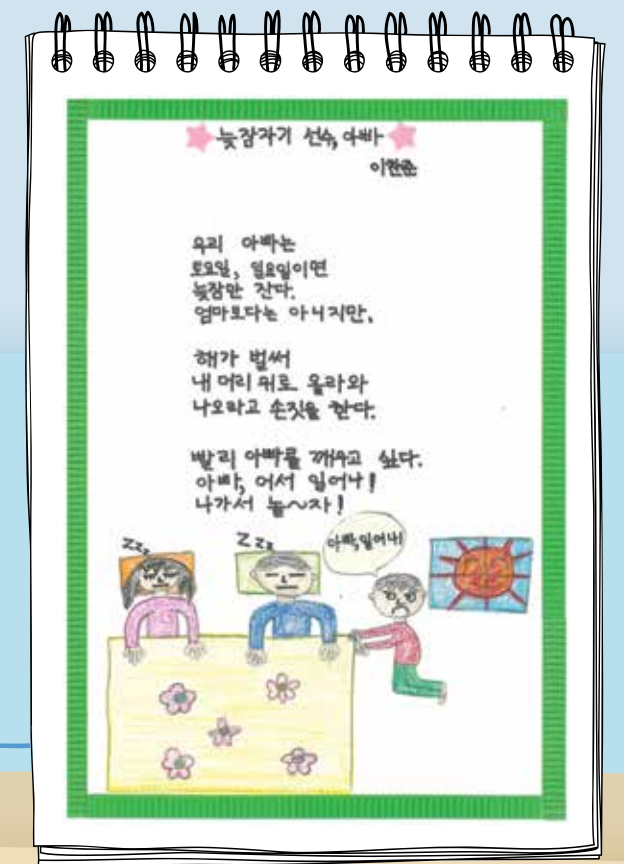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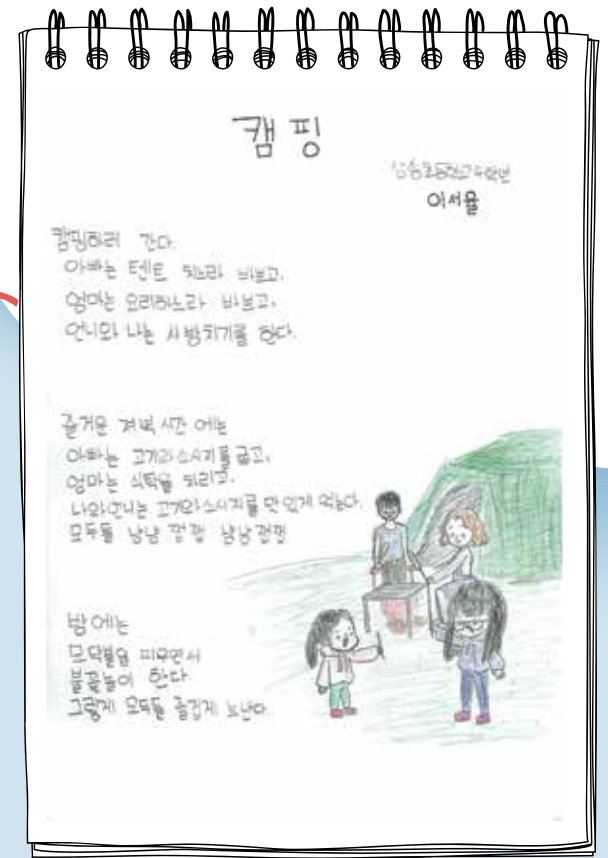
새싹상

아쉽게 수상을 놓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새싹상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새시시스템 BD 영업
신수일 부장
자녀 '신재연'



서울사무소 HR
이광렬 부장
자녀 '이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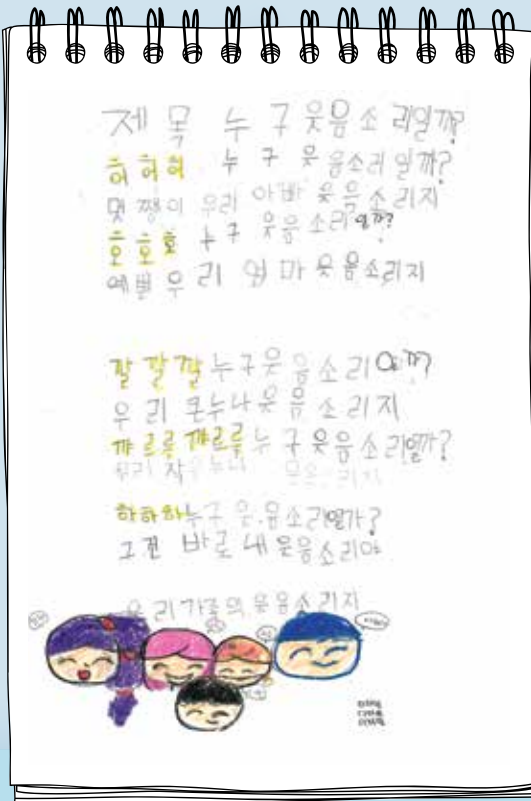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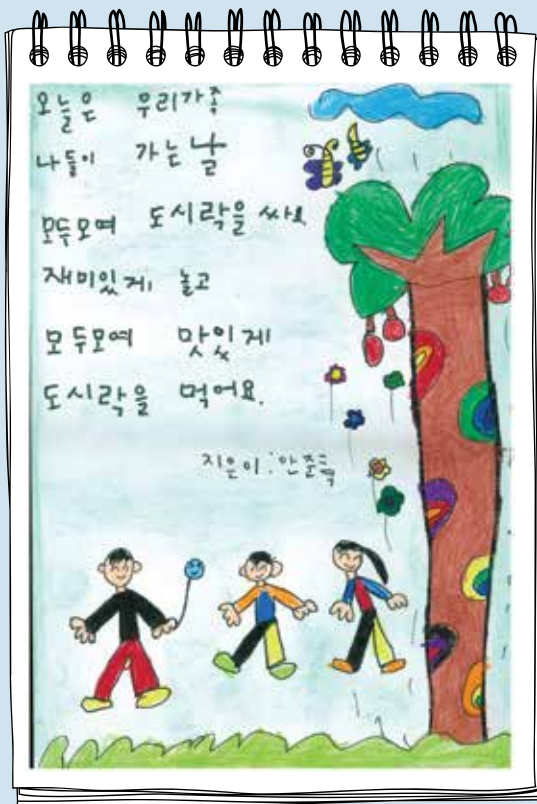


서울사무소
중부지사 해외영업
이선중 매니저
자녀 '이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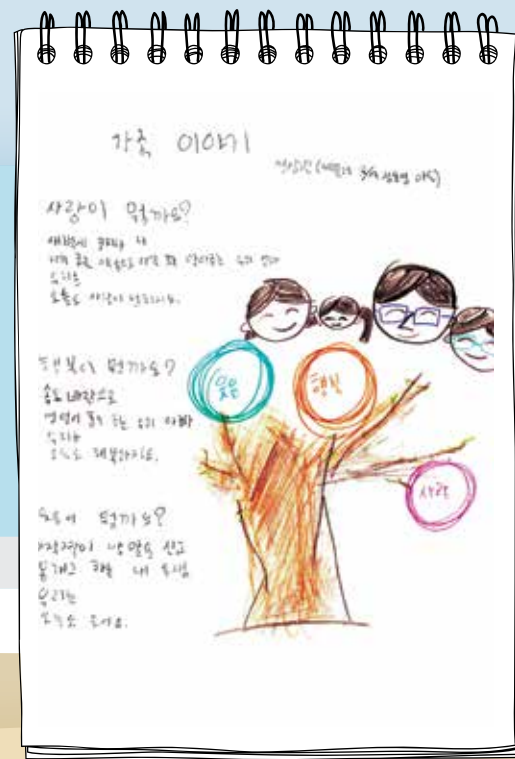
새싹상

아쉽게 수상을 놓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새싹상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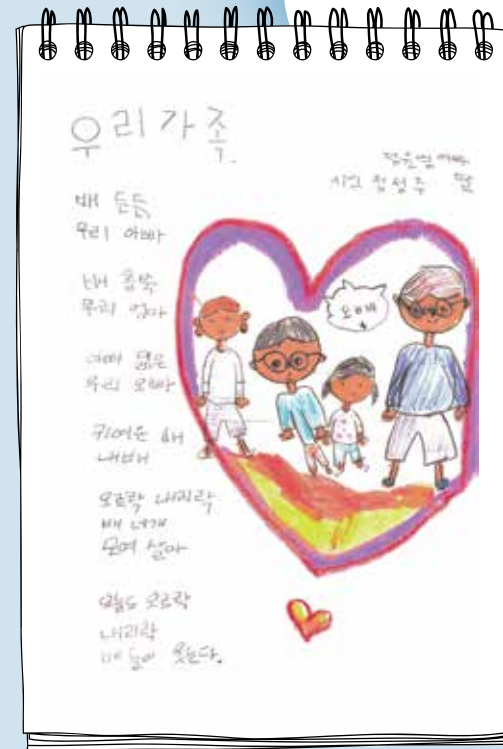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안철성 팀리더
자녀 '안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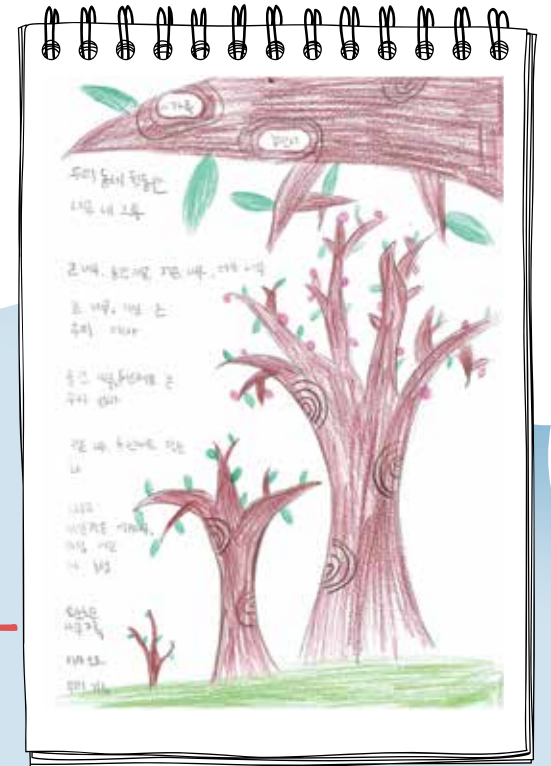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이효영 사원
자녀 '이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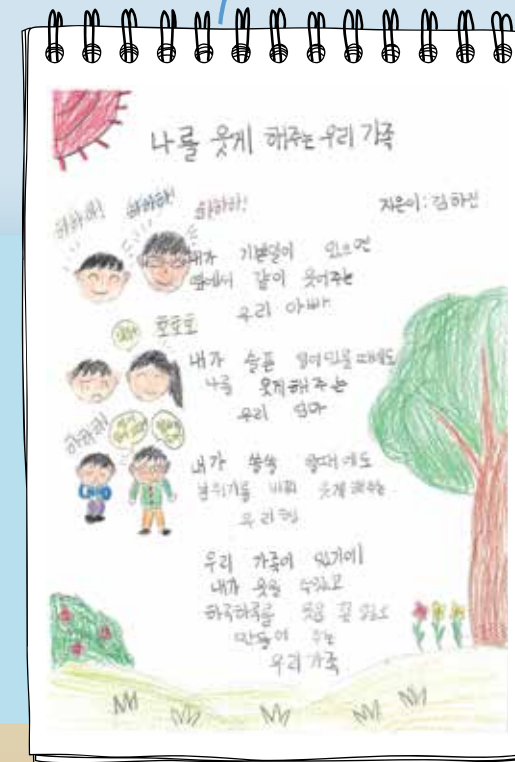
안산공장
품질보증
정윤영 과장
자녀 '정성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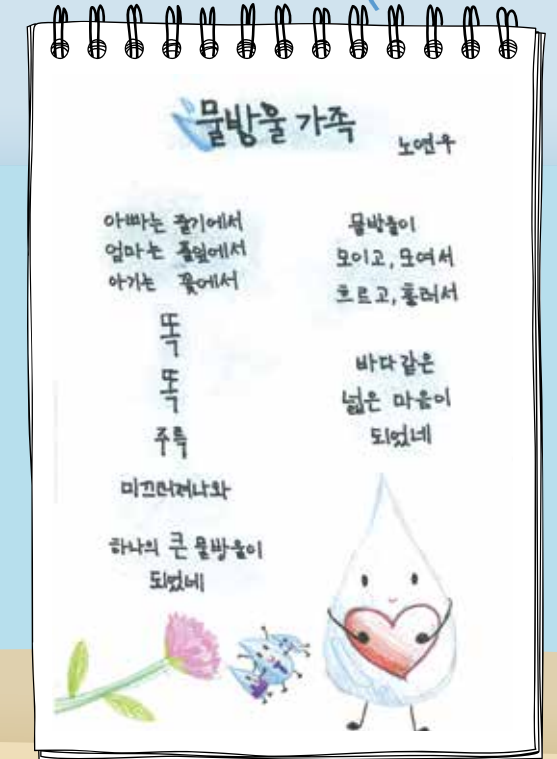
안산공장
품질보증
정윤영 과장
자녀 '정성주'



테크놀로지
강원환
선임매니저
자녀 '강민지'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성원 사원
자녀 '김하진'



창원공장
품질보증 볼베어링MU
노정화 사원
자녀 '노연우'



바람이 시작되는 곳, 전주부채문화관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배영식 사원

배영식 사원 가족은 우리나라 전통의 멋과 향기가 어린
전주한옥마을 속 3대 문화관으로 꼽히는 전주부채문화관을 찾았다.
무더운 여름철이면 손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채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하고 온 배영식 사원 가족의 여름 나들이를 따라가 보자.

전주 부채바람에서 전주 문화바람으로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습기가 가득한 여름 바람 부는 날 배영식 사원과 아들 수환이, 딸 수빈이가 전주부채문화관을 찾았다. 전주한옥마을은 방문한 적 있지만 부채문화관은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가득 담은 배영식 사원 가족은 전부 부채문화의 열이 서린 전시관을 찬찬히 누비기 시작했다.

“우와, 부채는 아주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 졌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요!” 초등학교 1학년답게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들 수환이는 부채의 역사와 전통에도 흥미 있게 귀 기울였고, 3살이 된 딸 수빈이는 재질도 색감도 다양한 부채들을 눈망울을 굴리며 구경하기 바빴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선자장 김동식의 부채부터 조선시대 부채를 만들고 관리하던 선자청의 부채까지 빠짐없이 둘러본 배영식 가족은 이마 가득 송골송골한 땀방울을 식히는 것도 잊은 채 전통 부채의 매력에 푹 빠졌다.



수빈이는
과감한 컬러의 선택과
터치를 아끼지 않으며
독막 나만의
부채를 만들었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좋아하는 수환이는
캐릭터의 색감과
이미지를 고심하며
한 땀씩 그려갔다.



화가의 꿈을 무럭무럭 키우는 부채 그리기

전시관인 지선실과 청풍실, 다양한 부채를 판매하는 바람가게를 지나 체험실로 이동한 배영식 사원 가족은 '부채 그리기 체험'에 나섰다. 아직은 어려 부채 만들기 보다 그리기 체험이 좋을 것 같다는 아들 수환이의 제안에 배영식 사원은 미소를 아끼지 않았다. “이제 2살이 되어가는 막내아들 수혁이가 태어나면서 수환이가 더 의젓해지고 동생들을 아끼려고 해요. 그런 수환이의 노력에 수빈이도 잘 따르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참 자랑스러워요”라며 큰아들과 딸 자랑을 빼놓지 않았다.

합죽선, 디림선, 색단선, 태극선 등 줄줄이 놓인 부채 중에서도 둥그렇고 넓적해 시원스런 바람을 부쳐주는 답선과 접는 소리와 손맛이 매력적인 접선을 하나씩 골라잡은 수환이와 수빈이. 두 남매는 이름까지 곱게 적으며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수환이는 신중하게 한 땀 한 땀 좋아



면여행에 나서니 평소 알지 못했던
관심사도 알게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그림일기를
함께 그려보고 싶어요.



하는 캐릭터를 그려나가기 시작했고, 수빈이는 과감한 컬러의 선택과 터치를 아끼지 않으며 똑딱 나만의 부채를 만들었다.

무더위를 쏙 날리는 수환이, 수빈이 표 부채

전시관 자체로도 전통을 머금은 한옥의 멋에 취해 벤치에 앉은 배영식 사원에게 다가온 수환이와 수빈이는 직접 만든 부채를 척하니 꺼내 들었다. “아빠 많이 더우시죠? 저희가 부쳐드릴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부채질하는 남매의 모습에 배영식 사원은 벌써 더위를 잊은 듯 “아~ 시원하다! 우리 아들, 딸이 최고 다 최고!”라며 연신 엄지를 치켜 올렸다. 오빠에게 더 세게, 더 힘차게 부채질을 하라며 장난을 치는 가족의 모습은 단란하기 그지없었다.

“부채문화관도 처음 왔지만, 함께 그림을 그린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환이와 수빈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어요. 화가를 시켜야 할까 봐요(웃음)”라며 배영식 사원은 이번 여행에서 새롭게 느낀 점을 고백했다. 평소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아이들과 시간이 종종 엇갈리고는 해 더욱더 많이 놀아주고 싶다는 그는 열정적인 아빠, 자상한 남편이 되겠다며 다짐했다.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불끈 나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수환이의 손길을 따라
펼쳐지는 부채바람은
배영식 사원의 더위는 날리고,
가족의 사랑은 채웠다.

+ Tip 전주부채문화관



가능하다. 부채 문화관은 소리, 완판본 문화관과 함께 한옥마을 3대 문화관으로 꼽힐 만큼 작품 및 프로그램의 구성이 다양하다.

문의 : 063.231.1774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93 전주부채문화관

2011년 10월에 개관한 전주부채문화관은 전주한옥마을 내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부채 문화관이다. 기획전시실인 지선실과 상설전시관인 청풍실, 기념품을 판매하는 바람가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부채 유물의 전시 외에도 상시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나만의 부채 그리기’ 체험도



〈아빠 어디가〉 코너는 세플러 가족 자녀분들의 그림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듬뿍 담긴 그림과 글자로 추억을 풍성하게 나누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플러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채 만들기 체험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채우듯 부채를 가득 채운 그림이 인상적이었어요. 부채를 보고 수박을 떠올리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재밌었습니다.

배영식 사원

다음에는 더 알록달록한
색으로 부채를 짹짹
채우고 싶어요.

배영식 사원 아들 수환, 딸 수빈

대나무 숲에 울려 퍼진 “우리 결혼합니다”

전주공장 공정기술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임주혁 대리



다가오는 9월 23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임주혁 대리와 여자친구
유리나 씨. 활짝 웃는
눈웃음이 닮은 두
사람은 결혼 전 하나뿐인
둘만의 추억을 남기려
담양 죽녹원을 찾았다.
대나무 숲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순간을
찾아가 보자.

추억이 깃든 첫 데이트 장소를 다시 찾다

전주공장 공정기술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에서 고주파열처리 라인관리 업무를 하는 임주혁 대리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다.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쁜 주혁 씨는 여자친구 리나 씨의 손을 잡고 담양 죽녹원을 찾았다. 주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흔하지만, 이들이 특별히 죽녹원을 고른 이유는 두 사람의 첫 데이트 장소이기 때문. 일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리나 씨에게 첫눈에 반해 적극적인 대시를 펼친 임주혁 대리는 결국 그녀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리나 씨를 처음 봤을 때, 동그랗고 큰 눈이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 눈이 너무 예뻐 풍덩 빠지고 싶었죠.(웃음)” 그런 주혁 씨의 말이 쑥스러웠는지 수줍게 웃던 리나 씨는 “저도 배려심 넘치는 주혁 씨의 인간적인 매력에 반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를 자랑하기 바빴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성격, 취향, 취미 등 공통된 분모도 많아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첫 만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첫 데이트 장소로 죽녹원을 고른 두 사람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서툴고 쑥스러웠지만, 대나무 숲을 거닐며 다리가 아플 정도로 대화를 나눴어요. 말이 잘 통해서 신기했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두 사람은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걸었다고 한다.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았는데, 그때 주혁 씨가 무릎을 꿇고 제발을 주물러줬어요. 땀을 빼질빼질 흘리며 정성을 다해 주물러주는 모습에 ‘아,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신을 소중히 위해주는 주혁 씨의 배려심 있는 모습에 또 한번 반한 리나 씨. 첫 데이트 후 주혁 씨에게 마음을 더 활짝 열 수 있었다고 한다.

고마운 리나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

일 년 전 기억을 추억하며 손을 잡고 대나무 숲을 걷던 두 사람은 그때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두 사람만의 비밀장소로 돌아간 듯 보였다. “결혼하기까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업무와 결혼 준비를 함께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었는데, 잠시나마 진짜 여유를 찾은 것 같아 행복해요.” 결혼을 앞둔 커플 대부분 그렇듯이 두 사람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들처럼 소소한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이 불협화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통과의례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슬기롭게 넘겼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함께 겪은 리나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던 주혁 씨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주섬주섬 꺼냈다.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당황한 리나 씨는 글씨 한 자 한 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혁 씨는 리나 씨를 따라 입가의 미소가 번졌다. “예전에 편지를 써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또 잊지 않고 챙겨준 주혁 씨 고마워요.” 둘의 알콩달콩한 사랑을 시기하듯이 어느덧

Will
you
marry
me
?



하늘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록 머리 위로 비가 떨어지고, 한낮의 별도 만만치 않았는데 주혁 씨의 편지 때문인지 리나 씨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를 감싸 비를 막아주며 걸음을 재촉했다.

두 사람의 앞날을 밝힐 무지개가 떠오른다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연못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주혁 씨는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리나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방에서 화관과 꽃을 조심히 꺼내어 들었다. 이내 주혁 씨는 화관을 조심스레 리나 씨 머리 위에 살짝 올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 내어 고백했다. “부족한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리나야.” 비가 와서 준비한 이야기를 전하지 못할까 조마조마했던 임주혁 대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리나 씨는 대답 대신 주혁 씨의 마음을 달래 주듯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주말이라 죽녹원은 대나무의 시원한 기운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붐볐는데, 많은 사람 속에서도 두 사람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공처럼 빛이 났다.

+ Tip 담양 죽녹원

2003년 5월에 개장하여 약 3만㎡의 공간에 울창한 대나무숲과 가시문학의 산실인 담양의 정자문화 등을 볼 수 있는 시가문화촌으로 조성되어 있는 담양 죽녹원. 전망대, 쉼터, 정자, 다양한 조형물을 비롯해 영화·CF 촬영지와 다양한 생태문화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족, 연인, 친구, 수학여행 등 연간 관광객 13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문의 : 061.380.2680
홈페이지 : www.juknokwon.go.kr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셰플러코리아 사우님들!

사랑에 세레나데에 참여를 원하시는 사우님들은 엽서 또는 minyje@schaeffler.com 메일로 신청하시길 기다립니다. 사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는 삼 남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형제들과 서로 의지하며 우애 있게 지낸 기억들이 있어 자식들에게도 형제애를 꼭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결혼 후 자신들처럼 삼 남매를 낳아 활기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두 사람. 아이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이 곳곳에 스며든 가정을 이루길 기대해본다. 연애와 달리 결혼은 남이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함께 헤쳐 나가는 일이다. 결혼 준비 중 크고 작은 파도 때문에 흔들리는 과정을 지나 마침내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에 다다른 두 사람. 지금까지 서로를 믿고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 아름답고 찬란한 앞날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결혼을 앞두고
〈사랑의 세레나데〉코너에
리나와 함께
나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우리 지금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평생 사랑하자!”



To. 리나

결혼을 앞두고 리나와 〈사랑의 세레나데〉코너에 함께 나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나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리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어려운 길이지만 나와 함께 하기로 선택해줘서 고맙고, 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지금처럼 아름답게 평생 사랑하자!

사랑해.

From. 리나 밖에 모르는 주혁



고달픈 청춘에게 보내는 한 그릇의 뜨거운 응원

삼계탕

테크놀로지 전용기 개발
이건명 사원, 이동렬 사원

우리시대 청춘은 힘겹다.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건국 이래로 이전 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빠야 청춘'이 아니라
'꽃보다 청춘'이 될 수 있도록
청춘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
올여름 무더위보다 더한
세상살이에 지친 그들에게
충고 대신 뜨끈한
보양식 한 그릇 건네며
'힘내'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건명 사원, 이동렬 사원

“이건명 사원은 대학후배이자 입사동기로 아끼는 동생입니다. 앞으로 같이할 회사생활이 30년 이상 남았는데, 지금처럼 변함없이 쪽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렬 사원

여름 보양식의 스테디셀러, 삼계탕을 만나다

무더위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아이스크림이나 냉면처럼 시원한 음식만 찾게 마련이다. 하지만 옛 어른들은 슬기롭게도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더위에 지친 입맛을 다스렸다.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음으로써 허한 속을 보하고 기운을 얻도록 했는데 이런 음식을 보양식이라 불렀다. 보양식에는 여러 음식이 있었으나 그 중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아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삼계탕이다. 여름철 삼복더위를 맞이해 속 든든히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세플러인들에게 삼계탕을 소개하고자 테크놀로지 전용기개발팀 이동렬 사원과 이 건명 사원이 이름난 삼계탕 맛집을 찾았다. 이제 입사 2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세플러이자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한 살 터울의 대학 선배 사이로 같은 팀에서 함께 생활하며 더욱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절친'이기도 하다. 일 년 남짓 지나온 사회생활 적응에 힘든 점이 있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서로를 챙기며 지내다 보니 허물없이 지내는 형 동생 사이가 되었다. 이런 두 사람이 오늘은 모처럼 시간을 내어 몸보해볼 요량으로 이건명 사원이 알음알음으로 삼계탕 맛집인 이곳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새내기 직장인의 이열치열 사회 적응기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요즘 같은 시기에, 둘 다 창원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으로 세플러에 몸담고 있는 두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도 번듯한 청년들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참은 늘 힘겨운 법이다. 같은 팀내 선배들이 일하는 것 하나 하나 꼼꼼히 가르쳐주고 업무가 힘에 부칠 때면 종종 술자리를 마련해 주기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지만, 아무래도 학생에서 직장인으로서의 변신은 일 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어도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했다고 자평한다. 그럴수록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힘을 얻는 단다. 이번처럼 두 사람만 따로 식사 자리를 가지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명 사원이 한창 연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했다. 이번에 찾은 삼계탕 집도 이건명 사원이 여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곳이란다. 다들 그러하지만 학생 시절에는 잘 알지 못했던 '맛집'이라는 것을 사회생활을 하고,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다. 그리고 아마도 삼계탕 같은 보양식 또한 소위 말하는 한창 나이 때는 잘 모르다가 직장 생활이 한두 해 더 지날수록 보양식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맛을 알게 된다. 같은 또래의 여는 청년들보다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해가고 있는 이동렬 사원과 이건명 사원도 말하지 않았지만 남다른 고충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속으로 삼키며, 서로 의지하며 곳곳이 이겨내는 모습이 더욱 믿음직해 보였다.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에 곁들여 나온 인삼주까지 한잔 씩 나누고 나더니 두 사람 다 코끝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너무나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삼계탕이었겠지만, 이열치열로 더위를 다스리는 것처럼 더욱 치열하게 일도 연애도 삼계탕 한 그릇 똑딱 해치우듯 잘 해나갔으면 싶다.



“이동렬 사원은 평소에 저를 잘 챙겨주는 형인데,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유쾌하게 넘기는 모습이 더욱 좋아 보이고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건명 사원



국보삼계탕
경남 함안군 산인면 산인로 333
055.585.7383
www.kb3.co.kr



삼복더위를 이기는 방법, 복달임

초복, 중복, 말복 복날이 들어 있는 달의 찌는 듯한 더위를 가리켜 '복달임하다'라고 한다. 또한 그러한 때에 고기불이로 국을 끓여 먹는 풍습을 '복달임'이라 한다. 오늘날 복날에 먹는 단고기 보신탕이나 삼계탕 같은 음식이 바로 복달임이다.

몇 해 전 프랑스의 여배우이자 동물애호가인 브리짓트 바르도가 우리나라 대통령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제발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88 서울 올림픽 때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철탕(영양탕)집을 집중 단속하였다.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더니 요즈음은 다시 시내에도 많이 생긴 듯하다. 그러나 아직 당국이 개고기를 식육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도살이나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젯거리이다. 구장(狗醬)이라고도 하고, 흔히 보신탕으로 더 잘 알려진 개장국은 대표적인 여름철 보신 음식, 특히 복날 음식이라 할 수 있다.

허한 기를 보충해 주는 삼계탕

삼계탕은 구장(狗醬)이 식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20세기에 들어 복날의 대체식품이 된 것이며, 이후 인삼이 대중화되면서 연계탕이 삼계탕으로 된 것이다. 닭이 가진 평(平)한 성질에 인삼이 가진 온성을 결합시켜 이것을 상극설에 적용시켰는데, 삼계(蔘雞)인 화(火)가 복(伏)인 금(金)을 극살한다는 음양오행설의 상극(相剋) 법칙인 화극금(火剋金)설에 따라 복날의 사식이 되었다. 삼계탕은 약병아리에 인삼, 황기, 대추, 찹쌀 등을 넣고 꼭 고아서 만든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보고인 닭고기와 만병통치의 영약인 인삼이 만나 탄생시킨 환상의 맛이다. 삼계탕에는 몸에 좋은 부재료가 듬뿍 들어간다. 마늘과 인삼은 대표적인 부재료이고, 대추와 밤도 많이 넣는다. 고소하고 걸쭉한 맛을 살리기 위해 땅콩가루나 들깨가루를 넣기도 한다. 삼계탕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씩은 먹게 되는 보양식으로 외국 인들도 부담 없이 좋아해 인기를 모으는 대표적인 한식 매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황색의 임탁은 성평(性平)하고 소갈을 다스리며, 오장을 보익하고 정(精)을 보할 뿐만 아니라 양기를 돕고 소장을 따뜻하게 한다.”, “인삼, 성온(性溫)하고 오장의 부족을 주치하며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허손(虛損)을 보한다.”라고 하였다.

삼계탕의 이유있는 변신

삼계탕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요즘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퓨전 삼계탕이 만들어지고 있다. 녹각(사슴뿔), 밤, 잣 등이 추가되는 것은 기본이고 자연산 전복을 껍질째 넣거나 낙지가 들어가는 삼계탕도 있다. 홍삼 한 뿌리를 통째로 넣는 삼계탕도 등장했다. 온갖 한약재가 들어가는 '한방 삼계탕'이나 낙지, 꽃게, 전복 등을 넣은 '해물 삼계탕', 독배기가 아닌 대나무 통에 닭을 넣고 찌는 '대나무통 삼계탕'도 있다. 그러나 역시 최고의 삼계탕은 사위가 처가를 찾았을 때 장모님이 애지중지 카우던 씨암탉을 아낌없이 잡아 끓여 주신 삼계탕이다. 흐물흐물 고아진 삼계탕에서 푹 떼어낸 닭다리는 사위를 향한 장모님의 무한한 사랑의 상징이다. 무더운 여름날 최고의 피서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일 것이다. 영양이 풍부한 뜨거운 음식을 땀을 뻘뻘 흘리며 먹음으로써 체온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지혜로운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온 가족이 삼계탕으로 복달임을 한 뒤 근처 시원한 개울가에 가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 한 통 쪼개 먹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최고의 휴가가 아닐는지.

가만히 있어도 맘이 흐르는 요즘, 시원한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계절입니다. 바다 풍경을 색칠해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멋진 작품을 완성해보세요.



To
Communicate

이토록 찬란한 바다라니

콜롬비아 산 안드레스 (San Andres)

비현실적인, 너무도 비현실적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인식의 장이 새로이 열릴 정도로 맑고 푸른 바다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으로도 부족해 그 바다가 궁극의 빛깔과 자태를 선보이며 사방팔방 360도로 펼쳐지는 광경을 경험한 일이 있는가. 직접 보기 전까 지는 나 역시 믿지 않았다. 여섯 번의 절도 사고를 겪고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남미 대륙을 살살이 훑어 내려 간 이가 힘주어 권하기에 꽤 근사한 광경을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 정도만 했을 뿐이다.

내 여행에도 눈부신 바다는 적지 않았다. '감동적'이라는 수식어가 어김없이 따라붙는 바다. 가 본 이들 대다수가 찬사를 늘어놓는 곳들이었다. 더 이상의 바다는 없겠다 싶은 곳도 있었다. 그런데 산 안드레스의 바다가 인식의 세계를 도끼로 내리찍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라는 표현마저 궁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맑고 투명한 그 바다 앞에서 언어는 제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 세계에 대한 좁은 이해를 산산이 박살내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는 누구라도 그러했으리라. 경험을 과신해 온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카리브 해의 한가운데에 믿지 못할 투명함으로 일렁이는 바다가 있다. 어찌나 투명한지 세계 지도를 펼쳐 소문난 바다를 하나하나 짚어 보아도 비교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경험 많은 여행자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하는 그 바다를 콜롬비아인들은 제주도 드나들듯 한다. 수도인 보고타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 영토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나카라과에 더 가까운 열대의 섬 산 안드레스(San Andres)에 그 바다가 산다.

천상에도 바다가 있다면

기막힌 바다가 본 섬 주변에 이미 여러 곳이었다. 그러나 배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아쿠아리오(Aquario)와 조니 케이(Johnny Cay)를 도는 일일투어에서 도끼가 다시 한번 내리쬘었다.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는 상상을 초월한 광경을 다시금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이동 구간마다 극단의 빛깔로 옷을 바꿔 입는 바다의 재주가 경이로웠다. 천상에도 바다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었다.

아쿠아리오에서 만난 풍경은 그보다 더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맑고 푸른 바다가 사방팔방 360도로 펼쳐졌다. 시선 닿는 곳마다 바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바다였다. 황홀하다 못해 피안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바다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빠짐없이 맑았다. 다시 배를 타고 도착한 조니 케이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영겁의 시간을 이 상태 이대로 존재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며 영속할 것 같은 투명한 바다가 지천에 가득했다. 나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아, 이토록 찬란한 바다라니.

생동하는 삶의 풍경들

바다 하나만 바라보고 찾아간 길이었다. 세상에 다시 없을 바다만으로도 이미 족한데 섬 곳곳에서는 생동감마저 자주 넘실거렸다. 활기찬 어조로 여행자를 맞이하는 숙소 직원들이며, 가게 앞에서 낙천적인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는 상점 주인들이며, 바위틈에 숨은 해양생물을 캐기 위해 맨발로 바닷가를 누비는 까까머리 소년들까지 섬 주민들은 자기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중이었다. 정적인 장면 속에서도 삶은 생동했다. 먼바다를 응시하는 노인의 등쪽에 서는 지난했던 인생이 슬라이드쇼처럼 흘러갔고, 구멍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내어 주는 소녀의 볼 위에서는 수줍은 미소가 발그레하게 번졌다.

낮을 대로 낮은 목조 가옥들이 빚어내는 바닷가 풍경은 또 어떤가. 30km쯤 되는 해안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동안, 공간은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배경으로 자주 둔갑했다. 곳곳에 숨어 있던 비경들도 불쑥 튀어나와 진로를 막았다. 아름다운 백사장이 늘어선 구간을 지나 서쪽으로 자전거의 핸들을 꺾으니 이번에는 지역색을 한껏 살린 숙소와 노천 바들이 나를 반겼다.

바다만으로도 이미 풍요한데

아무런 인연을 만들지 못했더라도, 할 일이 없어 시간만 죽이는 나날을 보내야 했더라도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른 그 바다만으로 나는 충분히 풍요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까지 날마다 찾아 들었다. 활달한 여행자들 사이에 뒤섞여 유쾌한 추억을 쌓았고, 피서 차 여행을 왔다는 현지인 가족에게서 넘치는 환대도 받았다. 흐름에 몸을 맡기니 사람이 절로 흘러들었다. 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그 섬에서는 누구도 사람을 비껴가지 못했다.

바다 곳곳에는 수명을 다한 어선들이 부식된 채로 누워 있었다. 그 곁에서는 구릿빛 소년들의 물놀이가 한창이었다. 캐리비안의 해적도 일손을 멈추고 쉬어 갔을 그 광경 앞에서 다음에 올 때는 더 길게 머물 것을 다짐했다. 데려오고 싶은 이들의 이름도 마음속으로 나열했다. 누구라도 그 투명한 물결에 눈이 베일 것이고, 그 푸른 빛깔에 마음이 흠뻑 젖을 테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경이 엄연히 지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는 그동안 부정했던 것 하나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긍정하기 시작할 테니까.



야성을 깨워야 진짜 축제지

감각이 바짝 일어섰다. 진정한 축제라면 야성을 깨울 수 있어야 할 텐데 여기가 거기구나 싶다. 문명을 거부하지 않으나 문명에 잠식당하지도 않는 지성적 존재로서의 고도의 자연성, 헤르만 헤세의 관점을 빌리자면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던 황야의 이리를 깨우는 것. 크고 거창할 필요도, 거칠고 위협적일 필요도 없다. 생의 미시적인 아름다움을 다시금 감지해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시작이다.

가만 보니 물총을 난사하는 남자의 팔 근육이 산맥처럼 불룩하다. 물벼락을 뒤집어쓴 여자의 살결은 인어의 비늘처럼 빛난다. 물세례를 받은 여행자의 턱 끝으로 진주 같은 물방울들이 흘러내린다. 그 궤적이 고드름을 닮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들을 조목조목 읽어 내다가 문득 깨닫는다. 송크란을 권하던 이들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들 호들갑스러웠는지를.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산업의 발달과 함께 무수히 많은 취향과 가치, 목표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다양해졌고 저마다의 다른 행복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술한 라이프스타일 중에서도 대세는 있기 마련. 새롭게 떠오른, 그리고 트렌드로 자리 잡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한다.

여유로운 삶, 저녁 있는 하루

2017년은 '북유럽 디자인과 감성'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유럽의 디자인과 감성은 휴식과 포근함을 내포하고 있다. 폐쇄적인 지리적 요건과 긴 밤, 혹독하고 추운 계절의 특징을 가진 북유럽은 독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했다. 집 안을 밝고 포근한 휴식의 공간으로 꾸민 인테리어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유와 휴식을 즐기는 여가 방식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휴식'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자극했다. 더불어 개인의 영역추구 및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휘게, 키포크, 미니멀라이프, 옴로족 등의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단어의 표기는 다르지만 이 신조어들은 모두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휴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다면,

휘게(Hygge)와 키포크(Kinfolk) 라이프스타일

느리고 소박하게 소중한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을 추구한다. 휘게는 편안함과 아늑함을, 키포크는 가까운 이웃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름에서처럼 행복의 가치를 소소한 일상에서 찾는 라이프스타일이다. 때문에 양초, 아가자기한 무늬의 식기, 따뜻한 느낌의 침구와 원목 가구 등 편안함을 주는 인테리어와 가족 혹은 이웃과 음식을 나눠먹으며 교류하는 문화 등을 유행시켰다.

심플한 삶을 원한다면, 미니멀 라이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양식이다. 과도한 경쟁과 보여주기식 사치 혹은 유행을 따라가기 위한 소비 대신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비용을 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무소유와는 다르다. 입지 않는 옷과 책, 방을 가득 매운 짐 등 불필요함을 치우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 외에 인간관계나 취미 등에도 적용된다. 24시간 교류의 장인 SNS를 끊는다거나, 단출한 가방으로 떠나는 백패킹 여행 등 개인의 시작에 집중하는 비용이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짧고 굵게 살고 싶다면, 옴로(YOLO) 라이프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에서 탄생했다. 가늘고 길게 보다, 짧고 굵게 사는 삶을 즐기는 이 방식은 불확실한 미래 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했으며 TV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을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옴로 라이프는 자극히 자기주도적인 소비와 삶의 패턴을 담고 있다. 가치관에 따라 투자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기에 즉흥적이라 여길 수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삶의 가치를 즐기는 도전적인 라이프스타일이다.

ENJOY YOUR LIFE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콘텐츠

휘게 라이프의 하루를 담은 도서

〈휘게 라이프(HYGGE LIFE),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이 책은 휘게가 무엇인지 그리고 휘게 라이프의 본고장 덴마크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즐기는데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덴마크의 체계적인 복지, 교육 시스템보다도 휘게 라이프가 주는 만족도 더 크다고 서술했다. 매일의 행복을 느끼도록 돕는 휘게 라이프를 배워보고 싶다면 〈휘게 라이프(HYGGE LIFE),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를 펼쳐보자.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먹기 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니멀리스트들의 지침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미니멀리즘의 열풍을 부른 도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고 집을 텅텅 비우게 하는 책이 아니다. 과도한 욕심,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에 허덕이던 저자가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행복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책은 나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 되묻고 있다. 문득 집이 좁게 느껴진다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고 따라해 보기 바란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simple is best' 그것만을 기억하자.

옴로족의 항공권부터 숙박까지!

여행을 돕는 어플리케이션 'skyscanner'와 'airbnb'



원하는 곳과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여행도 가볍게 떠나는 옴로족, 그들처럼 손쉽게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플리케이션 'skyscanner'와 'airbnb'를 이용해보자. 글로벌 여행 검색 사이트인 skyscanner를 이용하면 대구간 항공뿐만 아니라 각종 항공사의 프로모션까지 함께 예약이 가능해 조금의 수고를 들인다면 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숙박 공유 플랫폼 airbnb는 업소가 아닌 방 혹은 집을 숙소로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 사진과 후기, 호스트와의 메시지 교류를 통해 저렴하거나 접근성이 뛰어난 숙소를 얻을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올시즌 여름휴가 전 'skyscanner'와 'airbnb'를 다운받아 보면 어떨까?

Life Style

세플러코리아 미래, 저희가 그려가겠습니다! 신입사원 8명을 소개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초롱초롱한 두 눈을 반짝이는 이들.
바로 세플러코리아를 새롭게 그려나갈 8명의 신입사원이다. 앞으
로 어떤 사원이 되고 싶은 지 그리고 어떻게 보탬이 되고 싶은 지
이들이 말하는 다짐과 포부를 들어봤다.

서울



김진국 사원 _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햇빛' 같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저를 보면 누구나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었으면 좋겠어요. 햇빛처럼
밝고 따스한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신임다운 패기와 자신감으로
회사에 공헌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동희 사원 _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술
'돌' 같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돌처럼 묵묵하고 묵직하게 맡은 바를
성실히 완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세플러코리아를
이끌어나가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창원



유재훈 사원 _ TR Segment 창원
'강아지' 같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신입사원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나는 일이 많은 텐데
강아지처럼 혼이 나도 웃으며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긍정적이고
씩씩한 후배가 되고 싶어요.

전주



김동현 사원 _
공정기술 볼베어링 세그먼트
'허수아비' 같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원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신입사원답게 세플러코리아의
상쾌한 바람을 일으키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웅 사원 _
공정기술 볼베어링 세그먼트
'비타민' 같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통통 튀는 매력과 상큼함으로 동료들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세플러코리아의 일원으로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묵 사원 _ 공정기술 헬베어링 세그먼트
'잡스' 같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품질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년, 20년이 아닌
세플러코리아의 다음 세기를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오영철 사원 _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미어캣' 같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항상 동료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눈치 빠른
사원이 되고 싶어요. 27살부터 60살까지
세플러코리아의 미래와 저의 미래가 공생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안산



장호길 사원 _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장그래' 같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드라마 <미생>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장그래 같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장그래처럼 공장수급 및 물류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즐겁하고 꼼꼼하게 업무
수행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가득 담긴 주머니

세플러코리아와 EVERGREEN 5기가 함께한 행복주머니 만들기 봉사



에버그린 5기는 여름을 맞아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천연 모기퇴치팔찌와
천연 비누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상쾌한 비누 향기처럼
이웃사랑의 향기가
풀풀 풍기던 현장을 찾아가 보자.

소매를 건어붙이고 봉사에 몰입하다

지난 7월 8일 토요일 오전, 대학생봉사단 에버그린(EVERGREEN) 5기 20여 명이 세플러코리아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만들어 줄 생각에 설렌다”는 봉사단의 표정에선 이른 아침이었지만 피곤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진행된 활동은 ‘함께하는 사랑발’이 주최한 참여형 기부캠페인으로 저소득 아동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천연 비누와 천연 모기퇴치팔찌를 직접 만들어 주머니에 담아 전달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에버그린 5기는 지난 4월부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꾸준히 봉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봉사단은 제작할 비누와 팔찌 그리고 주머니를 만드는 법을 교육받고, 공장 작업에 몰두했다. 먼저 천연 비누를 만들기 위해 소매를 건어붙이고, 준비된 일회용 비

닐 봉투에 정해진 비율에 맞춰 재료를 넣어 반죽을 만들었다. 도란도란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비누 반죽을 완성한 후 다양한 모양의 틀에 반죽을 꼭꼭 채워 넣었다. “소꿉놀이하는 것 같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던 봉사단은 반죽이 마르길 기다리는 동안 천연 모기퇴치팔찌도 만들었다. 석고가루와 물 그리고 모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식물성 오일을 몇 방울 섞어 만든 재료를 동그란 모양으로 빚은 뒤 준비된 실리콘 팔찌에 붙여 완성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완성한 주머니

1시간여 만에 비누와 팔찌를 완성한 봉사단들.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어려웠지만, 선물 받을 아이들이 생각하며 성심성의껏 만들 수 있었다”며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봉사단은 준비된 천과 실, 바늘로 두 가지 선물을 담을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다. 평소 해

보지 않던 바느질에 멧찍은 웃음이 나오던 봉사단은 결눈질로 옆 사람의 손길을 훑어봐 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주머니를 만들어 나갔다. 비늘에 실을 꿰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봉사단은 어느새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힐 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느질에 집중했고, 비록 땀뻘뻘 서툰 솜씨였지만 천천히 한 명 한 명 주머니를 완성해갔다. 봉사단은 정성스레 만든 주머니에 비누와 팔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넣고 조임끈을 조여 아이들에게 전달할 행복주머니를 완성했다.

봉사를 마친 에버그린 5기는 입을 모아 “어린이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용품을 직접 만들어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에버그린 5기가 완성한 행복주머니는 ‘함께 하는 사랑발’이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세플러코리아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S C H A E F F L E R W I T H E V E R G R E E N



+ mini interview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4학년 이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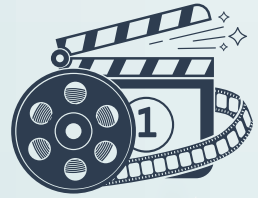


이번 행복주머니 봉사활동은 제 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행복’주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름처럼 ‘행복’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에버그린 5기 활동들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Tip

함께하는 사랑발

후원문의 _ 060.7000.815
온라인 후원 _ www.withgo.or.kr



B컷 퍼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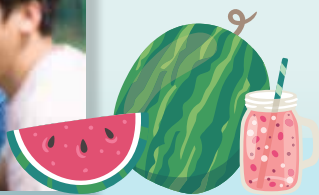
사보에 아쉽게 공개하지 못했던 재미있는 B컷을 공개합니다.
이번 여름호에는 태양보다 빛나는 세플러인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열정이 가득했던 촬영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4p

〈무모한 도전〉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너그러운 엄마미소 씨~익

자신이 만든 화채를 선배님들이 맛있게
드시시길 바라는 광영진 사원.
사실 화채를 맛본 부서원들의 표정은
난감 그 자체였습니다 ㅎㅎ
그래도 고생했다며 광영진 사원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주는 부서원들을 보며
남다른 팀워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16p

〈다시 찾는 수학여행〉 서울사무소 인사 Unit

물꽃튀기는 두 사람의 대결

어린 부서원들보다 몇 배는 더 신나하던
배영서 과장과 박영곤 선임매니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두 분이 계셔서 인사 Unit은 더욱 빛났습니다.



12p

〈무모한 도전〉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내가 바로 이 구역의 춤신춤왕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훌라후프를 놓치지 않
으며 애를 썼던 김동석 사원. 마치 트위스트
를 추는 것 같아 보여 부서원들의 웃음을 유
발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김동석 사원님! 고맙습니다!



26p

〈아빠 어디가〉
전주공장 불베어링 세그먼트 배영식 사원 가족

아저씨, 왜 저만 찍으세요?

통통한 볼과 동그란 눈 그리고 애교 많은 성격으로
취재팀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영식 사원의 딸 수빈이.
그야말로 시선강탈이었습니다.



30p

〈사랑의 세레나데〉 전주공장 공정기술
테이프베어링 세그먼트 임주혁 대리

그들의 사는 세상

장소를 이동하는 중 갑자기 무릎을 꿇고
포즈를 취하던 임주혁 대리. 그리고
그 모습에 당황하지 않고 감동받은
표정을 짓던 여자친구 리나 씨.
이미 웨딩촬영을 해본 예비부부라
전문모델처럼 포즈를 척척 취했습니다.
두 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6p

〈아빠 어디가〉
전주공장 불베어링 세그먼트 배영식 사원 가족

나비처럼 번쩍 날아올라

더운 날씨에 계속 되던 촬영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손 그네를 태워주던 배영식 사원.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위대합니다!



16p

〈다시 찾는 수학여행〉 서울사무소 인사 Unit
이 순간만은 직책을 버리고!

물총 하나에 순식간에 어린이이로 돌아간
부서원들은 서로 더 공격하려고 '깡깡' 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참! 물 속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우성웅 사원님.
하리는 관찰으신가요? ㅠㅠ



창립기념일 맞아 장기근속자 및 모범직원 134명 표창



◀ 창립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는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이사

지난 8일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창립기념식에서 이병찬 대표이사가 창립기념사를 낭독하며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광화문 서울사무소 및 전국 사업장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 올해 세플러코리아는 지난 1953년 설립된 신한베어링공업을 기준으로 창립 64주년을, 2006년 세플러그룹의 일원인 세플러코리아로 새롭게 출범한 이래로는 11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100명의 임직원이 장기근속상을 수상했으며, 34명은 모범상을 수상했다. 장기근속상은 10년 단위로 10·20·30·40년 근속한 직원에게 수여되며, 근속기간별로 금메달 및 표창 수여와 함께 부부동반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범상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매년 창립기념일마다 업무상 공적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모범상을, 장기근속한 직원에게는 장기근속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병찬 사장은 “2006년 ‘세플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해 1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전반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 장기근속상 및 모범상 수상자

지난 8일 광화문에 위치한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창립기념식에서 장기근속상과 모범상을 수상한 임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클라우스 로젠펠트 세플러그룹 CEO 방한 ‘미래를 위한 움직임’ 본격 실행 나서

▶ 지난 14일(수) 방한한 클라우스 로젠펠트 세플러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타운 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4일(수) 방한한 클라우스 로젠펠트 세플러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수) 클라우스 로젠펠트(Klaus Rosenfeld) 세플러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했다.

클라우스 로젠펠트는 2013년 세플러그룹 CEO로 취임했으며, 한국 방문은 3년 만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장 순방 중 한국을 방문한 그는 첫 일정으로 전주공장을 찾아, 임직원들과 함께 전 생산라인을 돌아본 뒤 1시간가량 타운 홀 미팅을 진행했다.

클라우스 로젠펠트 세플러그룹 CEO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타운 홀 미팅에서 2016년 11월 새롭게 공표한 전략 ‘미래를 위한 움직임(Mobility for tomorrow)’에 따른 그룹의 비전과 미션에 대

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세플러그룹의 한국 내 투자 등을 주제로 임직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클라우스 로젠펠트 CEO는 이 자리에서 세플러그룹이 앞으로도 뛰어난 품질 관리를 통해 자동차 및 산업기계 분야에서 기술 선도적인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국내 유수의 전자·통신업체와 사물 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세플러코리아, 고객서비스 향상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 공식 런칭



세플러코리아, 고객서비스 향상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 공식 런칭

세플러코리아는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제품의 상태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정비까지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을 공식 런칭했다.



세플러코리아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 시연

세플러코리아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이 지난 6월 8일(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과 함께 실제 고객사인 삼아알미늄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세플러코리아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을 공식 런칭했다.

화물용 승합차를 특수 개조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에는 세플러 베어링의 조립과 해체, 상태 진단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실려 있다. 베어링의 다양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윤활용 그리이스(grease)도 함께 적재되어 있다.

고객사 제품에 장착된 베어링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상태 진단 감시 시스템인 FAG 스마트-체크(FAG Smart-Check)도 탑재되어 있어 베어링의 상태를 빠르고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상태 진단 결과에 따라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내 기계 및 유압식 베어링 해체 도구를 이용,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베어링을 현장에서 바로 해체 및 정비까지 가능하다.

산업기계 부문장인 권오경 상무는 “이번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 런칭을 계기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업체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목) 세플러코리아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직원들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고객사 삼아알미늄 평택공장을 방문해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을 시연했다. 앞으로 세플러코리아는 고객사를 직접 방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 내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제품의 상태를 진단하는 고객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 . 울 . 사 . 무 . 소

대학생봉사단 5기 벽화봉사



5월 7일(토),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금옥중학교에서 대학생봉사단 에버그린 5기의 벽화 그리기 재능기부 활동이 진행되었다. 세플러코리아는 서울 지역 관공서들과 협력하여 노후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밝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과 함께 매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버그린 5기 단원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벽화 그리기는 동화 속 장면들을 테마로 하여 금옥중학교 재학생들과 인근 시민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에버그린 5기 단원들과 세플러코리아 관계자가 힘을 모아 완성한 벽화로 약 100m 길이의 금옥중학교 외벽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2016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우수 협력업체 선정



6월 16일(금), 제주도에서 진행된 피아트크라이슬러의 ‘2016 아웃스탠딩 서플라이어 퀄리티 어워드(2016 Outstanding Supplier Quality Award)’에서 품질우수 업체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세플러코리아 이외에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등 10개 업체가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아웃스탠딩 서플라이어 퀄리티 어워드’는 FCA가 매년 글로벌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및 기술력, 사후보증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연 300만 불 이상 거래업체 중 품질문제에 대한 적합성 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sCONNECT 워크숍 실시



6월 8일(목)~9일(금), 세플러 그룹에서 새롭게 런칭할 예정인 그룹웨어 sCONNECT 트레이닝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부서별로 구성하게 될 그룹웨어 내 커뮤니티 생성 등 sCONNECT 기능의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독일 본사의 sCONNECT 담당자가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워크숍에 참석한 각 부서의 담당자 20여 명은 새롭게 런칭될 그룹웨어 시스템을 함께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기아 국제 파워트레인 컨퍼런스(HKIPC) 공식 스폰서사 선정



6월 15일(목), 올해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관하는 HKIPC의 공식 스폰서사로 선정되어 스폰서사를 대상으로 한 킥오프 미팅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현대·기아차 국제 파워트레인 컨퍼런스’는 국내외 150여 개 파워트레인 관련 업체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술세미나, 신기술 전시 등을 통해 선진 기술을 교류하고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상생 협력의 장으로서, 최근 현대·기아차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글로벌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전문 학술대회다. ‘고객 가치 증대를 위한 파워트레인 기술 한계에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될 예정이다.

서 . 울 . 사 . 무 . 소

장기근속 임직원 해외여행



- 당사는 장기 근속 사원에게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수여해 오고 있다. 이에 금년 장기 근속여행은 미국2차수(6/2~8, 6/9~15), 이탈리아 2차수 (6/12~17, 6/19~24) 총 4차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미국 22가족 57명, 이탈리아 19가족 59명, 총 43가족 116명이 참석하였다.

창 . 원 . 공 . 장

2017년 5월 어버이날 효도관광 실시



- 5월 12일(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임직원 부모를 대상으로 효도 관광을 진행했다. 창원공장은 매년 어버이날을 전후로 본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150여 명의 임직원 부모가 참석하여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유명한 청남대를 방문하였다. 참석자들은 시간과 먼 거리로 인해 평소 가보지 못한 청남대 관광을 준비한 창원공장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 . 산 . 공 . 장

안산공장 주변(변두리) 방역



- 안산공장에서는 여름철 모기 및 해충 퇴치를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연무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장마와 이른 폭염으로 인해 최적의 모기 서식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산공장은 일본뇌염, 지카바이러스 등 질병매개 모기에 의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장 내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다.

혹서기 기간 동안 현장에 이온음료수 지원

- 본격적인 혹서기에 접어들면서 안산공장도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안산공장은 현장마다 이온음료를 제공하며 작업자들의 비지땀을 식혀주고 있다. 근로자 탈수 예방을 위해 식염 포도당을 지급하고, 알코올과 카페인인 있는 음료 지급은 되도록 피하고 있다. 또 삼계탕 등 보양식은 물론 과일을 제공하고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취사장과 식당 청결 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다.

전 . 주 . 공 . 장

전주덕진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6월 9일(금), 세플러코리아와 전주덕진소방서가 합동으로 초기 화재진압체계구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기진압대응 능력의 배양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자위소방대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요령, 물품반출 및 인원대피,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 등 교육이 이뤄졌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세플러코리아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인 만큼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초기대응능력을 함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5월 어버이날 효도관광 실시



- 5월 1일(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임직원 부모를 대상으로 효도 관광을 진행했다. 올해는 180여 명의 통영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 '장사도 해상공원' 둘레길을 함께 걸었다. 참석자들은 시간과 먼 거리로 인해 평소 가보지 못한 장사도 관광을 준비한 전주공장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전주공장 산악 동호회 한라산 백록담 등반



6월 4일(일) 전주공장 산악동호회 ‘한울 산악회’ 2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등반에 올랐다. 4시간여 코스로 백록담에 올라 시원한 절경을 함께 즐겼으며, 향후에도 국토의 명산을 등반하는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테크놀로지 레이아웃 변경



2016년 말 레이아웃 확정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테크놀로지 레이아웃 변화와 BD Chassis Engineering과 전자기 개발팀의 사무실 이전 작업을 시작하였다. 6월 9일, BD Chassis Engineering과 전자기 개발팀의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고, 연구소의 회의실 및 각 테스트실의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테크놀로지 내의 메인 사무실 등의 인테리어 변경 및 사무실 레이아웃 변경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는 향후 테크놀로지 내 근무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건명 사원 기계가공 기능장 국가 자격증



테크놀로지 전자기 개발팀의 이건명 사원은 2017년 5월 12일, 기계가공 기능장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기계가공은 기계 제조 전반에 걸친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생산시설이 자동화됨에 따라 더 많은 숙련기능인력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되었다.

수행직무는 선반, 연삭, 밀링, 기

어절삭 등 기계가공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총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한다.

Schaeffler Hotline

서울사무소

2017. 3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함형석 | 27일
부친상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BU
이상우 | 29일
장인상

2017. 4

엔진 콤포넌트 BU 영업
김광진 | 8일
장모회갑

2017. 5

전략기획
김문경 | 4일
장모회갑

엔진 콤포넌트 BU 영업
김재환 | 7일
장모회갑

통상지원
김정훈 | 9일
부친상

법무
조세영 | 11일
부친회갑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
BU 엔지니어링
유경호 | 16일
모친상

NPM
문경태 | 25일
장인회갑

2017. 6

협력사 개발
김종민 | 10일
장인회갑

Global Technology Service
김성만 | 13일
장인회갑

창원물류
황인수 | 25일
자녀결혼

2017. 7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
BU 엔지니어링
김모성 | 15일
본인결혼

안산공장

2017. 4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이희철 | 22일
자녀결혼

2017. 5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차용남 | 5일
장인회갑

품질보증 안산
권빛나 | 15일
모친회갑

2017. 6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노병구 | 16일
장모회갑

Customer Service 안산
최수창 | 20일
모친회갑

2017. 7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영수 | 2일
장모회갑

엔진부품 세그먼트
서정희 | 3일
부친할손

2017. 8

엔진부품 세그먼트
전성경 | 8일
부친회갑

전주공장

2017. 4

사업관리 전주
임준선 | 22일
본인결혼



2017. 5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정재룡 | 15일
장인회갑

2017. 6

설비보전 전주
강석환 | 10일
본인결혼



휠베어링 세그먼트
한동재 | 12일
자녀출산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영록 | 20일
부친회갑

창원공장

2017. 5

공정기술지원 생산기획
김영재 | 1일
부친회갑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형두 | 5일
장인상

선삭 세그먼트
이준형 | 7일
자녀결혼

설비보전 창원 베어링부품 MU
황용만 | 7일
본인결혼

설비보전 창원 베어링부품 MU
표현수 | 10일
장모회갑

품질보증 테이퍼베어링 MU
송동원 | 12일
장인상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삼재범 | 12일
장모회갑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정재룡 | 15일
모친상

생산계획 테이퍼베어링 MU
박종구 | 17일
모친회갑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정만수 | 20일
본인결혼

설비보전 창원
김본기 | 20일
자녀결혼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강형구 | 23일
모친회갑

차공구서비스 테이퍼베어링 MU
박현석 | 23일
자녀결혼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권기대 | 26일
부친상

차공구서비스 베어링부품 MU
조정환 | 27일
모친상

단조 세그먼트
김중년 | 29일
장모상

2017. 6

설비보전 창원
이수철 | 3일
자녀결혼

테이퍼컬러 세그먼트
조명식 | 3일
자녀출산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김성원 | 4일
장모회갑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준호 | 5일
부친회갑

선삭 세그먼트
김기성 | 5일
자녀출산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치훈 | 5일
자녀출산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고영진 | 13일
모친회갑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추형식 | 13일
장모상

사업관리 창원공장
정호상 | 20일
장인회갑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영일 | 23일
장인회갑

공정기술 창원 PMO
윤태인 | 26일
장인상

2017. 7

설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
방성근 | 1일
부친상

테크놀로지

2017. 4

재료기술
이영호 | 1일
모친회갑

기계설계
장성남 | 2일
장모상

R&D 서비스
한진우 | 15일
조모상

2017. 5

R&D 서비스
판정민 | 2일
장모회갑

설비조립
유용준 | 12일
장모상

재료기술
강민욱 | 13일
본인결혼

BU 휠 모듈 엔지니어링
조지은 | 23일
모친회갑

2017. 6

BU 새시 & 액세서리 /
액츄에이터 엔지니어링
김한규 | 7일
장모회갑

기계설계
장성남 | 25일
부친상